

아시아의 電子 戰爭



調 查 部

- ……電子戰爭! 尖端科學技術의 꽃이라…○
- …할 수 있는 電子業界가 불꽃 튀기는 치…○
- …열한 戰爭을 벌이고 있다. 좁게는 國內…○
- …넓게는 全世界가 電子戰爭의 열기로 뜨…○
- …겁기만 하다. ……………○
-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조라 할 수…○
- …있는 아시아의 實情은 어떠한가. 최근…○
- …NewsWeek誌의 分析을 중심으로 아시…○
- …아의 電子戰爭의 實情을 살펴보았다. ……○
- ……………編輯者 註…………○

4 마리의 작은 龍

요즘 日本의 電子企業들은 西歐企業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어디까지 쫓아 오는지 어찌 너머로 뒤를 돌아다보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지난 몇년 사이에 아시아에서는 '4마리의 작은 龍'으로 불리는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가 낮은 원가, 방대한 분량의 家電製品을 무기로 半導體·電氣通信·컴퓨터分野에서까지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오르는 성장속도는 특히 日本·美國등의 先進競爭國들의 의구심을 자아 내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머지않아 이들 4나라 大競爭國들에 대해 保護貿易政策과 高度 技術의 輸出금지라는 수단으로 對應策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電子産業이 봄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대그룹이 7억달러를 投入하여 컴퓨터·電子工場을 세울計劃이고 臺灣 기업들은 대당 200달러 이하의 파격적인 價格으로 橫造 Apple컴퓨터를 製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電子産業界의 世界的 리더인 IBM은 프린터 기재, 키보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端末機를 싱가포르에서 購買하여 全世界의 系列工場으로 運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시아의 電子爆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目標을 너무 높게 책정한 나머지 技術的 優위를 차지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 싸움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東部 아시아의 新生工業國들은 값싼 라디오·시계·텔레비전 및 그밖의 소비용구들을 조립하여 많은 수출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독자적인 製品을 開發함으로써 그들의 産業基盤을 擴大하려고 한다. 이러한 變化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人件費가 비교적 싸다는 利點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經濟가 變遷해짐에 따라 임금인상이 촉진된 반면 로보트를 비롯한 技術的 發展의 결과 日本·美國등지에는 劇的이라고 할 정도로 생산코스트가 低下되어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競爭이 可能하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이 보다 값싼 生産者로서 家電製品 生産部門에 뛰어들었으며, 중공 역시 어느 나라보다도 위협적인 競爭者로 대두할 可能性이 높아졌다.

모델 戰爭도 치열

이와 같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解決策은 네 나라 모두 똑같다. 즉 보다 앞선 製品을 生産하여 결국 日本 製品에 對應할 수 있는 經濟的 모델을 만들어 競爭을 벌이는 것이

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의 電子製品 輸出總額 가운데 컴퓨터 및 關聯 製品은 10분의 1 이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그보다 적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컴퓨터 산업은 1980年대를 통틀어 매년 80% 이상 擴大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의 경우 1990년대까지 電子製品 輸出額의 3분의 1을 尖端技術 부분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外國 投資家들과 긴밀한 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關鍵이다. 동부 아시아의 여러 企業들은 西歐의 電子産業 總本座인 IBM, 콘트롤 데이터, 하니웰 및 AT&T와 상업상의 유대를 유지해 왔으며 政府의 支援 역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외국의 電子企業들을 끌어들이고 國內 製造業者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政府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시스템을 쓰고 있다. 즉 “선구적 지위”를 차지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0年 동안 면세혜택과 함께 모든 利益金을 本國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臺灣 政府는 국외 및 國內 投資家들에게 機械類나 源資材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고 市場金利 이하의 政府資金을 支援해 준다.

價格 싸움도 불만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동부 아시아의 電子産業 進出 競争에서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재산은 엔지니어와 技術者의 축적량이 많다는 점이다. 대만의 종합대학과 공과대학들은 해마다 25,500명의 새로운 專門家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숙련 기능공들도 싼값에 고용할 수 있다. 대만 엔지니어들의 평균임금이 9,800달러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17,000달러, 한국은 12,900달러, 홍콩은 10,000달러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대만의 지위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電子産業振興을 위해 수10억 달러를 投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한국의 4대기업인 현대·대우·삼성 및 럭키금성그룹이 조달한다. 한국의 경우 냉장고, 간이 녹음

기 및 텔레비전은 계속해서 주요 수입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電氣通信·컴퓨터·단말기의 開發에 집중적인 努力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外國 기업과의 새로운 라이선스 협정 및 공동 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政府支援의 研究事業—특히 企業쪽에서 보면 아직도 너무 앞선 분야—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4개국에 日本의 市場을 가로채고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 점에서는 어느 정도 成功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지난날 美國이 차지하고 있던 光學부문에서 日本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제한된 수량의 製品을 집중 開發함으로써 토랜지스터 라디오, 테이프 레코더, 흑백 텔레비전 제조 부문에서는 상당의 市場을 인수한 셈이다. 造船·鐵鋼·纖維産業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잠식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日本은 흑백 텔레비전을 포기하고 컬러 텔레비전에 주력하거나 컬러 텔레비전에서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生産으로 이행하는 등 보다 진보된 製品을 開發함으로써 競争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이들 4개국에 현대의 尖端 技術에 도전해 오게 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日本은 그 對應策으로 競争國들에 대한 技術의 이전을 둔화시키기 시작했다. 예컨대 지난 7월 초순 스미또모 전자는 한국에 光纖維 技術을 提供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製品은 국내에서만 販賣되어야 한다는 條件을 붙였다. 最近에 이루어진 다른 거래의 경우 일본의 빅타社는 2개의 韓國企業에 日本이 開發한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生産을 허가하면서 상당 기간동안 輸出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 놓고 있다. 日本의 목적은 특정 기술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기 보다는 技術의 사용을 지연시키는데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국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은 조바심은 日本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美國 역시 技術을 提供하는데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西歐 國家들은 점차 保護貿易主義의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4개국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工業化뿐만 아니라 日本이나 西歐의 노우하우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